

## 고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 1. 조편성 및 답사지역

고전문학반은 서대석 선생님, 박희병 선생님의 지도 인솔 하에 2000년 5월 1일(월요일)에서 5월 4일(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일대에서 구비문학 및 문현 자료를 조사·채록하고, 문화 유적을 답사하였다. 조 편성 및 조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조 : 서대석 선생님, 손태도(박사과정), 김경희(석사과정), 김성준, 홍아주  
(학사과정)
- 2조 : 류준경(학과조교), 임재욱, 서정민(박사과정), 안준호, 이윤정(학사과정)
- 3조 : 최현재(학과조교), 한길연, 권정은(박사과정), 조성진(석사과정), 김지숙(학사과정)
- 4조 : 심우장(박사과정), 안순태, 나수호, 초립평(석사과정), 이은실(학사과정)
- 5조 : 이경하, 김현식(박사과정), 염윤주, 윤경아(석사과정), 박진영(학사과정)
- 6조 : 박희병 선생님, 김하라, 박재경, 최지녀, 강국주, 고은(석사과정)

### 2. 조별 활동 및 자체 평가회

1조는 고창군, 부안군 일대의 구비문학 자료를 조사 채록하였다. 1일에는 고창읍 고창 경로당 기로사를 방문하여 모심기 노래, 김매기 노래, 고사소리 등을 채록하였고, 2일에는 오후에 2조와 만나 부안군 진서면 곰소에서 내림굿(신맞이)을 보았다. 그 내림굿은 남자무당(법사)이 주제하였는데, 무당 3명(남자무당 2, 여자무당 1)과 신을 받는 사람 모두 4명이 참여하였다. 굿은 산신굿, 성주굿, 조상굿, 천신굿, 내림굿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모두 2대의 비디

으로 이를 9시간 가량 동안 녹화하였다. 3일에는 고창으로 가서 황규언 씨 등에게서 고창마을굿에 관해서 조사하고, 집결지인 선운사에 도착하였다.

2조는 부안군 변산면, 진서면, 출포면 일대를 답사하였다. 5월 1일에는 먼저 변산면 노인정에 들러 김재연, 최일환 씨 등에게 삼신산, 쌍선봉의 유래, 최익현의 발전자 파자풀이 등을 채록하고, 서해무신의 설화가 전해지는 수성당을 답사하였다. 2일에는 진서면 노인정에 들러 남궁동현 씨에게서 시조창 3편을 채록하고, 고재순 씨 등에게서 월명암과 팔죽시 등 6편의 설화를 채록하고, 1조와 함께 내림굿을 보았다. 3일에는 내소사와 반계 유적지 등을 답사하고, 집결지인 선운사에 도착하였다.

3조는 부안군 계화면, 상서면 등을 답사하였다. 1일에는 주산면 노인회관에서 배철행 씨에게 농부가와 시주강 등을 채록하였고, 2일 오전에는 하서면에서, 이인기, 박양윤 씨 등에게 수심가, 흥타령 등의 민요를 채록하였으며, 오후에는 이영철 씨 등에게 시조창을 채록하고, 내소사를 답사하였다. 3일에는 하서면의 이영기 씨에게서 「농부가」, 「사철가」 등을 채록한 후, 집결지인 선운사에 도착하였다.

4조는 부안읍, 백산면, 행안면 등을 답사하였다. 1일에는 부안읍의 부안 국악원을 방문하여 고수 임찬중의 반주에 유인성 씨의 창으로 한산섬 등 9편의 시조창과 가곡창을 듣고, 다시 백산면 경로당에 들러 최숙자, 정순길 씨 등으로부터 소금장수 이야기, 남편 군집징 피한 이야기 등의 설화를 채록하였다. 2일에는 행안면에서 이기주 씨로부터 ‘왜울어’ 등 9편의 설화를 채록하고, 채석강과 부안댐을 답사하였다. 3일에는 개암사와 내소사, 반계 유형원 유적지 등을 답사하고 집결지인 선운사에 도착하였다.

5조는 고창군 무장면, 해리면, 상하면, 고수면 일대를 답사하였다. 1일에는 먼저 무장면에 들어가 이돈우 씨에게서 「선운사 ‘하애재’ 전설」 등 4편의 설화를 채록하고, 2일에는 해리면, 상하면, 고수면 등에서 박별여, 봉순희 씨 등에게 당할머니 전설 등의 설화와 노랫가락, 청춘가, 물레타령 등의 민요 10여 편을 채록하였다. 3일에는 고인돌, 동리 고택 등을 답사하고 집결지인 선운사에 도착하였다.

6조는 고창군과 부안군 일대를 답사하였다. 1일에는 부안군에 도착하여 매창시비와 남문안 당산 등을 답사하였고, 2일에는 수성당과 적벽강을 둘러본

후, 내소사, 반계 유형원 유적지 등을 답사하였으며, 3일에는 동리 신재효 고택과 고인돌군을 답사한 후 집결지인 선운사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조별 활동을 마치고 5월 3일 오후에 모두 고창군 선운사 앞 집결지에 모여 선운사를 관람한 후, 선운사 앞 숙소에 모여 이상태 선생님, 김병국 선생님, 서대석 선생님, 박희병 선생님을 모시고 고전문학반 답사 활동에 대한 평가회와 저녁 식사 및 뒷풀이 모임을 가졌다. 다음 날 5월 4일 아침 식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선운사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고전문학반 답사를 통하여 우리는 고전문학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방법과 요령을 체득할 수 있었으며, 적지 않은 설화, 민요 등의 구비문학 자료와 문화유산을 열람·조사·채록할 수 있었다. 특히 내림굿(신맞이)을 직접 조사·채록한 일과 시조창 등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나, 많은 민속조사와 문화 유적을 조사, 관찰할 수 있었던 점은 책이 아닌 몸으로 문화를 느낄 수 있어 많은 보탬이 되었다.

자료의 조사, 채록 못지 않게 이번 답사를 통하여 우리 고전문학반은 선생님과 대학원생, 학부생 사이에 더욱더 긴밀하고 돈독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고전문학반 답사를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와, 격려의 말씀과 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태, 김병국 선생님, 그리고 송팔성, 박경주, 박종성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과 적은 활동 비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답사 활동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 대학원생, 학부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지면을 빌어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자료를 제보·구연해 주신 제보자·구연자 및 주민여러분과 고장·부안군청 및 각 면사무소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 3. 조사 채록 자료

지면 관계상 조사·채록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발췌하여 실는다.

### 시조창

장소 : 부안군 진서면 곰소 경로당

구연자 : 남궁동현(남, 87)

구연일시 : 2000. 5. 2

조사자 : 류준경, 서정민, 안준호, 이윤정

#### (평시조 1)

원경의 천만상은 가는 춘풍 잡아매리

하마 봉접인들 지는 꽃을 어찌하리

아무리 기다린다한들 가는임을.

#### (평시조 2)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노인 반대마라

공정한 천지간에 청춘 항시 청춘인가

우리도 소년한 날이 어제인 듯.

#### (사설시조 1)

명년 3월에 오신다더니 명년이 한이 없고 삼월도 무궁하다

양류청양류황은 청황변색이 몇 번이며

옥창앵도 붉었으니 사계 화락이 얼마나고

한단지몽 빌려다가 장주호접이 잠깐 되어 몽중상봉 하자더니

한 장춘 단단야에 전전반측 잠못이뤄 몽불성을 어이허리

어디까지를 양안을 부진하고 야월공산 두견성에 기기운 잠 다 깨이운다.

### 부설과 팔죽시

장소 : 부안군 진서면 곰소 경로당

구연자 : 고재순(남, 73)

구연일시 : 2000. 5. 2

조사자 : 류준경, 서정민, 안준호, 이윤정

부설이라는 승도가 있었어. 그 분이 친구 두 분하고 이제 같이 오태산으로 크게 공부하러 간다고 말이야. 가는데 거기서 마침 그 불교믿는 신자 집으로 가서 투숙을 해. 장마가 지니까 못 돌아가고 있다가 날이 개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때 처녀가 있는데 말을 못해. 병어리지. 그 처녀가 이 부설이란 스님한테 정을 쳤다 이 말이야. 떠나게 되는데 병어리가 말을,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몸짓으로 이렇게, 요새 말로 구애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부설 스님이 안타까워. 그래서 이걸 팔 한번 잡은 것이 의외로 말이 트여버렸어. 그래서, 동반된 두 사람의 친구는 오태산으로 떠나버리고 이 부설스님은 거기서 주저앉게 되야. 주저앉고 김제에서 이제 계시는데, 그런 일이 있은 지 10여 년 후에 오태산에서 그 공부를 마치고 온 친구 두 명이 왔다 그 말이야. 그래 같이 이제 와서 뭐라 그러나면, 우리는 공부를 다 했는데 자네는, 부설스님보고, 가서 공부를 못한 낙오자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탁지청이라고 그러면 우리 내기를 한번 하자, 해 가지고 빈 병을 세 개를 가져오라 그리고 거기다 가득히 물을 부어. 웅? 그리고 천장에 매단단 말이여, 매달고. 오태산에서 공부, 대불을 공부하고 왔다는 한 친구보고 막대를 주고 물병을 쳐라, 물병을 쳐. 물병을 치니까 물병이 깨지면서 물이 와르르 쏟아진단 말이여. 또 한분보고, 한 친구보고 또 똑같은 형상으로 치라 하니까 똑같이 또 물병이 깨지고 물이 떨어졌단 말이여. 근데 부설스님이 이제 친다 그 말이여. 부설스님이 물을 막대기로 치니까 병은 깨지는데 물은 상승을 해. 물이 쏟아지질 않아. 이게 도술이라고, 친구들이 도술이라고 불렀대. 그래가지고 두 친구가 우리 협공부했다, 그래가지고 가 버리고 난 뒤에 부설스님이 그 묘화라는 처녀를 데리고 월명사로 갔어. 그게 월명암을 지었어. 월명암을 당초에는 다섯 개를 만들어 지었어. 그거 실록에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간에 이제 그 부설스님이 묘화라는 처녀하고 남매를 낳았어. 아들하고 딸하고. 딸은 이제. 아, 운석이가 아들이고 딸은 운화. 별도로 암자를 만들었어. 거기에서 따로 기식을 하시는데 그 뒤에 이제 없어지고 월명암 형태만 달랑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부설스님이 득도를 했다그려. 도통을 했다그래. 그 삼라만상이 라든가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배우는, 호연지기라 그러잖아. 호연지기를 누

리고, 배우지? 호연지기란 건 뭐이고 하니, 자연의 섭리.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자연의 그 진리를 이끄는 것을 호연이라 하거든. 그래 그 득도를 하는 게 전설이여. 그고 가서 부설스님이 그때 팔죽시를 읊었어. 팔죽시. 여덟 가지 시가 있어. 한문으로 말고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 (팔죽시)

이런대로 저런대로 되어가는대로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런대로 살고  
 읊으면 읊고 그르면 그르고 그런대로 보고  
 손님접대는 집안 유풍대로  
 시장물품사고파는 것은 시세대로  
 세상만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고 그런 세상 그렇게 보내.

## 손이 죽는 객사골

구연자 : 이인기(84세, 남)

구연일시 : 5월 2일 화요일

구연장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조사자 : 최현재, 조성진, 권정은, 김지숙

들어보라고. 안 잊어버렸나 모르겠다. 장소군 상서면 일정 때 내가 살던 마을을 마하리라고 했다고. 그냥 국문으로 쓰라고. 마하리 오수에서 장소로 넘어가는, 지금 포장했어. 포장 도로가 우리 마을 앞으로 났어. 그런데 우리 마을 앞으로 육씨의 정문이 있다. 그걸 써야 이 얘기가 돼. 육씨들의 정문이라 그 말이여. 정문이 있다. 고령계만 적으면 돼. 지금 내가 그때 열 다섯 살을 먹었으니까 여든 넷에 열다섯을 빼면 얼마지? 70년 전에. 약 70년 전이라고 쓰라고. 마하부락에 송춘경이가 살았다. 송씨의 일가 송기준이가 석양에 자기 일가 송춘경이를 찾아왔어. 다른 때는 바로 간 사람이 맹청망청하고 안

가. 그러니까 왜 안가고 그러고 있느냐 소리를 안하고 저녁에 자. 사랑에서 같아. 주인 송춘경이가 자다가 보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조금 있다 뒷간에 갔나 찾아봐도 없으니까 날이 새도 없네. 그래 인자 밤중에 저그집이. 자기 집이 거기서 한 이 키로 자기 아들을 시켜서 가보니까 사람이 온 일이 없다고 거기에서도 소동이 났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때 나는 우리 선생님한테 글을 읽어서 열다섯살 먹은 일을 기억을 해. 새벽에 동네가 징을 치고 난리가 났다고 손님이 와서 밤중에 나갔는데 사람을 못 찾는단다. 그래 청년을 전부 뵈 가지고 그 근방을 수색을 혀. 헉는디 객사골이라고 하는 그 고을 골짜기가 있어. 정문 뒤에 그래서 정문을 쓰는 것이여. 정문 뒤에 객사골이 있었는디 마을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객사골에 가서 무엇이 회뜩하니 뵈이거든. 저것 무엇인가 가보자. 낮에도 객사골은 혼자는 가기가 싫은데요 산데 낭떠러지가 되어 있고 산골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왜 그런가 하면 옛날부터 여시가 떨어지들 안혀. 그래서 그런데 거 밑에가 공동묘지여. 또 객사골을 가며는 해골바가지 그런 것이 많았어. 그래 거길 쫓아 가니까니 이 사람이 뿔뿔뿔뿔 기어서 산데 마을로 숨어. 그래서 송춘경이가 쫓아가서 니가 어제 여기와서 이러고 있느냐 하고 보니까 피가 저기서부터 죽죽 흘러서 손으로 헤벼서 갈퀴로 긁어놓은 것 같은 말이지. 그래 가지고 잡았지만 말을 못 혀.

(조사자) 혼이 빠졌네요.

응. 그래서 인자 업어다가 아까 그 정문 밑에가 주막이 있어. 김선명이가 주막을 하는데 소설을 작은 사람을 놨다 술을 팔았어. 궁게 거기 잤다가 업어다 놨어. 자기 집안이 전부다 왔어. 보니까 구녕이 뚫어져 벼렸어. 목이 피가 흘렀던 거란 그 말이지. 그래 거기서 일본 일정 때니까 주재소가 2키로 반이나 되었구나. 그래 사람이 또 가서 기별을 했지. 아 그때에 조선 순사 고성익이라는 순사가 있었어. 고성익이가 올라왔구만. 내가 구경했어. 주막에다가 갖다 놨는디 무식하들 안 혀 그 사람이. 말을 못 헉니까니 글씨로 쓰는디 우인이 방래라. 친구가 와서 찾아 산에 갔다는 것이여. 그러곤 말을 안 해. 아무 것도 안 써. 그러곤 몰라. 인자 주면치에를 찾아보니까 돈도 그대로 있어. 그럼 도둑놈이 그런 것도 아닌디. 그럼 무엇이 그랬냐. 여시라는 놈이 그

런 것밖에 더 있냐, 아 그 마을에서 거가 1키로나 되거든. 그 무서운 그 골짜기 거기를 왜 가서 그랬나 말이야. 그자 물을 떠놓은 게 입을 벌리고 떠 넣으면 이리로 흘러.(가슴을 가리키며)

(조사자) 목숨이 불은 것도 다행이네요.

그런디 정신이 돌아오면 우인이 방래라 이것만 써놓고 그러는디 말도 못 허고 벗우자 사람인자 친구가 찾아왔어. 헉 그것만 써놓고 그래서 인자 그때는 병원이 전주로 갈라면 멀고 남원이 가차. 무엇이 업옹계 교자를 해 가지고 도립병원으로 갔지. 가는데 고성익이라는 사람이 적어가. 사건을. 손이 죽은 골짜기다 객사골. 결론은 우리동네 사람들이 모다 교군을 두패로 쫓아 가야할 것잉계. 자기 형 마누래가 찾아왔는디 얘기 들으니까 도립병원에 가서 밤중에 죽었는디 여시소리를 하고 죽었다는 것이여. 그러니까 여시라는 것이 사람을 흘리서 목을 따서 그렇게 피를 먹는다. 그런것이 삼삼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물으니까니 물구용욕이라. 호구즉 괴물이라. 뭔 물건이든지 오래되며는 영힘이 있어 귀신이 따라 붙는거고 여시란 놈이 오래되며는 백여시가 된다고 하잖아. 그것이 되며는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고 하거든. 그런 설이 있으니라. 그런 말 내가 들은 얘기 있는데. 지금도 그 골짜기를 사람이 가기를 싫어혀. 내가 이리 이사를 와버링게 그걸 전설의 고향에다가 넣어주지도 않았다 이것이.

(조사자) 할아버지 보신 거예요? 직접?

아! 본거지. 아 송기준이 다 알잖아. 하면. 그 집이 송춘경이 살던 집이 송춘경이 이사가 버리고 한동안 비었었어. 밤이면 여시란 놈이 사람을 흘려간 데라 하는디 아 남 참 밤에 땅기들 못해. 그 문 앞을. 낮에도 싫다는 것이여. 그러니까 여시라는 것이 그렇게 못된 것이다. 오래 되면.

### 문화 유씨 시조 이야기

장소 : 전북 부안군 상서면 원감교

구연자 : 이영기(하서면 양지 마을, 남, 72)

구연일시 : 5월 3일

조사자 : 최현재, 조성진, 권정은, 김지숙

음. 문화 유씨가 있었는디…… 머시냐 잘 들어보소. 문화 유씨 시조를 내가 말하는 것이여. 얘기가 암 문화 유씨 시조. 근디 형제분이 살았어. 그 한 고을에 가서 근디 그 형제분이 살다가 참 성은 죽고 인자 동생이 하나 살았는디 인자 형의 아들 궁께 조카지. 그 조카가 조카랑 인자 말하자면 한 부락에서 인자 작은아버지랑 사는디 작은아버지가 어떤 행실을 할 것 같으냐 하며는, 문화 유씨지마는 그 지방의 풍속, 풍수 알지? 웅 말하자면 지리. 인자 여기 지관이라고 하는 인자 그 행실을 하고 땡겨. 땡기는디 에 머시냐 남의 일은 잘혀 잘해줘.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믄 남의 집에 가서 땅을 잡아주고 묘를 써 주고 돈 벌어 먹어. 어 그런 일은 잘하는디 자기 일은 못한다 그 말이여. 그런디 참 조카가 가만히 그 자기 작은아버지 하는 행실을 본께 저기 한다 작은아버지한테 그랬어. 작은아버지. 어이. 작은아버지는 이 부안군이면 부안군, 참 김제군이면 김제군, 이 지방의 풍수로서 참 이름을 아 날리고 땡기지 않습니까. 근디 어찌허니 우리 그 집안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묘는 그, 선조의 위치는 하나 못 잡고 계십니까 하고 인자 질문을 한께. 그렇지. 나도 참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 그려. 그리고 인자 얘기를 하고 끝났다가 한번은 그랬어. 조카가, 작은아버지. 내 말 들을라우 안 들을라우. 아 들을 말 같으면 들어야지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랑 이렇게 저 멋이냐 저 공동묘지 그전에 아는가 공동묘지라고. 그 왜놈들이 그 위치를 잡아서 다른데 다 못스게 했어. 전부. 그, 그래서 시방 공동묘지 가면 맨 묘여. 사람 죽으면 거기다가 다른 텐 못 가 왜정 때. 어 거리 갔다 묻어야 혀. 잉? 거기 땅이 있어도. 자기 땅 있어두 다른 텐 못 가고 그냥 거기다. 그래서 공동묘지란 데가 할아버지가 계신디 공동묘지가 물이 들었나 무시 들었능가 물이 들었나 말하자면 모른단 말이여. 궁께 말하자면 나는 어떻게 됐거나 참 우리 할아버지를 모실랑께 작은아버지 내말 조께 들을라루 안 들을라우. 아 들어야지야. 그려요. 그러므로는 이 재산 전부 팔으시오 작은아버지 재산도 팔고 내 재산도 팔고. 논 밭 모두 그 집 싹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라지 되라구야? 그래야. 그 당을 잡아서 내가 쓴께 살 수가 있어. 저 묘를 쓸 수가 있옹께. 그 그 집 논밭 팔아야 합니다. 그렇께 인자 내 말 들은다고 했옹께 내 말대로 해야 할 것 아니요. 할 수 없이 자기 조카의 말을 어기지 못해서 내놨어. 가령 한 마지기에 쌀 열되면 싸게. 그냥 여덟되, 일곱되, 그냥 니기미 한 마지기 싸게

판다. 그렇께 아무개 논이 좋대. 아무개 밭이 좋대. 싸대. 살 사람이 달라들 어. 살 사람이 안 달라 들겠는가. 그래가꼬 짹 허니 팔아서 조카한테 가꼬 강께 참 육 보셨소. 그래서 조카가 궤적을 하나 딱 짜드란 거다가 땀 담아서 딱 하니 쳐고해서 딱 하니 얹어 놓고 인자는 작은아버지가 머시냐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옹께 꼭 들어야 해라우. 그러마. 아무 날은 어디어디 말하자면 여러 말 저기 거산 거시기 어디에 가서 뛰이냐. 신의지, 그 못자리가 있으니까 머나 저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어머니하고는 재물을. 평토지 재물. 재물을 평토에. 그렇께 제사지내는 법 아는가. 알어?

(네, 대충은 압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그 처음이 뭐신가. 처음에 제사 지낼 적의 촇불 피고 그것이 분향제배. 강신제배. 강신제배가 있고 참신제배가 있어. 그리고 초혼이 있고 첫찬. 그렇게 죽어도 삼배 살아도 삼배가 뭐시간다. 죽은 사람도 석잔 올려야혀. 초헌. 첫잔을 올린다고 빌 혼자. 드릴 혼자. 처음 초자. 처음엔 첫 잔 드리다고. 아흔. 둘째잔. 아흔 종헌 제일 끝엣 잔 드린다고 종헌. 잉? 몰르면 다 써. 뭐시냐. 제사 지내는 법이 다 거시기가 있는 것이여. 그리고 첨배. 유식. 철상. 시방 다 거시기 그래가꼬 말하자면 음복하고 말하자면 그 삼세휴가 갖다가 술따르고 아버님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안녕히 가시라고 들어와야 그것이 제사 끝나는 것이여. 그래 인자 참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어머니하고는 거가서 계시오. 저 혼자 인자 가서 이자 파벼릴라고 있어. 자기 할아버지를 유골을 파.

(이장을 시킬라구요?)

인자 거기 인자 이장을 해야제. 인제 궁께 땅을 잡아놨어 조카가. 그래가꼬 인자 거가 딱 허니 거시냐. 가꼬와서 인자 묘를 쓰는디 저 삼태승이 거기 천강일은 발로 쿡, 마치 오며 기기 심이다. 하관신. 하관신. 인자 뾰를 신장하는 시, 신이 다 함께 조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인자 다른 테로 인자 뭐시냐 자기 조카가 피해있단 말이여. 두이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어머니하고 계시라고 하면서 자기는 인자 저 삼태승이 여기 오면 하관하자 인자 그땐 새파람이 쇄 하고 불은께. 추와. 추운가? 문 닫세. 추우며 문 닫고 나는 금방 더위서 벗었네만. 샛바람이라고 함께 시방 찬바람이 쇄 하고 불은께로 내우간에 이렇게 앉았다가 뾰작뾰작 옆으로 갔어. 인자 추운께. 추운께 뾰작뾰작 옆으로 갔는디 이젠 어쩔 수 없옹께. 인자 천강일은 속으로 들어갔다. 속으로 들

어가문 괴잖어? 거시기를 네모지기. 네모지기를 판디. 거기 속으로 들어갔다. 속으로 들어갔어. 내우간에. 들어가서 참 어찌기 되어 가꼬 마음이 저기 해가 꼬, 저 합의가 되었네. 알지? 그래서 참 부부간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이 아버지 계실 자린디 여기서 참 우리가 장난친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그 생각도 들어가. 이제 그리고 있웅께 거시기 인자 별이 삼태성이 올아와서 인자 조까 있웅께 조카가 왔어. 그래 가꼬는 묘를 썼어. 묘를 쓰고 인자 평토 지내고 잘 마무리 짓고 인자 집에 왔어 왔어디에 삼유젓 날. 삼유젓 날이 있어. 잉? 초유, 제유, 삼유. 그래. 잉? 삼유젓날 거가서 제사를 지내야 혀. 제사를 지내야 하는디 뭐시냐 거시기를 개를 한 마리 잡으시오. 조카가 뭣 할라고 그러냐. 개는 거 제사에 참 뭐시냐 거 음식에 들어가는 거. 음식이 아니여. 그것이 치근께. 개라는 것은 뚱 먹는다고 잉? 그래서 제사에 제사에 싸 올라가는 것이 아니여. 그런디 개를 한 마리 잡으라고 해 인자 개를 잡으되 한나 벤두지 말고 그냥 텔만 베껴서 그대로 그냥 음시롱이 갔다 나야 합니다. 그려. 그래서 개를 잡아서 인자 그대로 제삿상에 놓고 인자 가서 거 산에 가서 인자 있는데. 앗따. 조까 있웅께. 천둥소리가 나고 막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디 겁났을라 그래. 그렇게 인자 작은아버지가 아이 이게 뭔 소리냐. 그렇게. 예, 인자 조금 비끼시오 잉, 이제 저 속에 들어가 가만히 봅시다. 뭐시 어찌 생기나 가만히 보자고 그래. 인자 있웅께로 도채비들이 온 거기 가서 노는디 아마 어떤 놈들이 우리 노는 장소, 어 우리 노는 장소에다 묘를 썼다. 어 어떤 놈이 그랬나 보르겠다. 그놈 죽인다고 인자 막 설치고 땅기는디. 대장 도깨비 대장이 가만 있그라. 뭣 있다. 여기 좋은 거 있다. 개. 어. 도깨비가 개를 좋아혀.

(그래요?)

이것 좋은 것 있다. 이놈 먹자. 어. 그래가꼬 인자 개를 잘 먹고 뺏겼옹께. 묘를 파면 베리거든. 어 파면 베리는디 안 파고 그냥 가자. 그리고 간 뒤에 거시기. 저 조카하고 인자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어머니한테 하는 소리가. 보았죠?

(그게 명당이라고요.)

어, 보았죠? 봤다. 참 좋은 자리입니다.

(조카가 더 뛰어나네요?)

그렇지. 조카가 저기 작은아버지보다 훨씬 높지. 말하자믄, 그래가꼬서는

인자 거기르 인자 그런 줄 알고는 그 자 논 밭 다 팔았어. 그 놈을 딱 허니  
짊어지고는 서울로 갔어. 서울로 간디 그 길로 작은 어매가 애를 나는디, 셋  
을 나.

(셋을요? 한꺼번에?)

어 셋을 놓았어. 아들만. 셋을 났는디. 삼정승. 삼정승 살아 먹었어. 아들이.

(그게 삼태성 정기를 타고……)

그렇지 정기를 타고 삼태성 정기를 타고. 잘 아는구만. 말귀를 알아들어야  
혀. 삼태성 정기를 타고 셋을 놓았는디 삼정승을 살아 먹었어. 그래서 아랫녁  
문화 유씨가 에함 하고 양반이라고. 그런 것은 그 뒷바람의, 뒷바람의 어, 묘  
를 잘 써가지고 그렇게 삼정승을 살아 먹어서 에함 하고 양반이라고 그려.  
그런다네. 아랫녁 문화 유씨가. 전라남도에 문화 유씨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전라남도 문화 유씨가 양반이여. 그전부터. 양반 상놈 그라 안는가. 시방. 양  
반 상놈이 어디 있어? 지 행동을 잘 해야지.

### 효자이야기

장소 : 부안군 행안면 마동 이기주씨댁

구연자 : 이기주(남, 77)

구연일시 : 2000. 5. 2

조사자 : 심우장, 초립평, 나수호, 안순태, 이은실

그전에 한 마을에 정씨 한분하고 박씨 한분하고 살어. 그런디 정씨는 생원  
이라는 작호를 탔어. 생원이 지금 사람덜은 뭐인지 모르지? 그러나 말하자면  
그 요새 지위로 봐서 양반 족속에 들어가는 그 일종의 나라에서 준 생원이라  
는 칭호여, 그게. 칭호고.

하나는 박간디 박서방이여. 박서방은 이자 양반도 못되고 말하자면 그런  
중인배. 보통 사람이라 그 말이여.

그런디 이자 그 글도 못하고 그랬응게, 무식헐 건 사실 아니겠는가? 부모  
지사가 돌아와. 아버지 지시가 돌아왔는디. 꼭 정씨가 와서 제례, 그 지사 지  
내는 절차, 제례나 축이나 지방. 축 지방을 갖춘다고 않더라고? 그걸 정생원

이 꼭 히 쥐. 그렇게 정생원을 그냥 그 부모같이 여기고. 꼭 지삿날이머는 꼭 정생원이 히줄 것을 전제를 허년다. 하루는 정생원이 와서 허는 소리가, “하…… 오늘은 부득불허니 자네 아버지 지사에 참여를 못하게 생겼어, 내가. 긴급현 일이 있어서 출타를 히야겄넌디, 워쩔까?” 허고 걱정을 혀. 그러니 내 일 봄달라고 못가게 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녀 오십시오.” 히놓고 생각해 보면 기가 맥힌 일이여. 지사 어떻게 혈 줄도 모르고 정생원이 다 히주었기 때문이. 그 안에 정생원이 히줄 때 열심히 배워야 허는 것인디. 또 하루 아침이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자. 그 워치기 허까. 장만은 히놨겄다, 음식 장만은 히 놨는디. 그 마누라 허는 소리가 뭐라고 허는고 허니. 그게 현처라는 것이여그게. 어진 마누래여. “아 그 별 수 있소? 아버지를 모셔 와야지요.” 거 가만히 생각해봉게, 아 그러면 워치기 허까. “가십시오, 둘이. 가서 모셔옵시다.” 그리고 둘이 등불을 쬐잡고 한 십리, 한 사키로, 요새 말로 허먼 사키로 넘어 뒤야. 그놈 밤길을 초롱불을, 등불. 짚은이덜 등, 옛날 등 안 봤을터지? 안봤지? 그건 옛날 등은 사각 이렇게 되야갖고 나무로 짜고 거시기를 유리를 박었어, 이? 그전이는 유리도 나오기 전이는 백지로 바르고, 그렇게 쓰고 유리 나왔을 때는 유리를 박어 썼어. 궁께 말허자면 등불이라는 건 그렇게 생긴 것이여.

그리서 그놈을 들고 아버지한티 가서 둘이 인사를 허여. 절을. 묘소이 가서 이? 오늘 아부지 날인디. 아부지 앉을 자리. 말허자면 영위. 아 저 그 지방 못모시고 그리서 그양 모시려 왔습니다, 그것이여. 위폐를 못모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거 절을 허고 마누라하고 둘이, 모리려 왔다고 허고 이자 “집으로 가십시오.” 묘소이 가서 뭣이 있어? 집으로 가십시오. 궁께 아버지 모시고 오는 뜻으로 “여기는 질이 나쁩니다. 여기는 골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자 그 풀이, 뭐 거침새가 있습니다. 조심허쇼.” 얘기를 허구 와. 그러면서 뭐라고 허는고 허니. 앞의 논이서는 쌀을 열매를 먹고, 이자 작년 농사에? 뒤 밭이서는 보리를 열매나 했고. 내 살림살이는 작년이는 어떻고 소 키운 것이 소새끼는 놓고…… 허년 평소에 허거덜. 그러면 요새 사람덜이 허년 소리가 저거 아버지가 뭐를 물어보며는, 요새 짚은이덜, “아버지 아버지는 몰라도 되야요.” 이것이 상례여. 어머니가 물어보며는 “어머니는 뭐헐라고 그려, 그거 일어서 뭐헐

라고?” 이것이 상례여. 그런디 그 사람은 녹두도 몇 되 해 놓고, 말하자면, 콩도 열매 했고, 자기 가간사 손지놈 하나 요새 말로 허먼 어디 핵교를 땡기고…… 주옥 허니 얘기를 허면서 와. 와갔고는 이자 음식을 챙기 놓고 절을 허고 “많이 잡수쇼” 그러고 또 이자 한참 있다가 가실 시간이 되었응게. 이 초개명이라고 그려, 그소리가 무엇인고 허니, 축시가 되면 축시가 두 시 딱 치면 축시로 들어가는 것이여. 한시 오십 오분 오십 구초까지는 뭐 자시고, 그 축시가 두 시 딱 치면 축시여, 이. 그러면 축시가 되면 닭이 울어. 옛날에는 시계가 없응게 닭소리 듣고 때를 알은 것이여. 궁게 초개명이라는 소리가 뭔고 허니 그게 첫닭이 울 때가 축시여. 첫닭 우는 소리가 낭게, “아버님, 가십시오.” 아 그리고 또 모시가 가가꼬는 “편안히 계시오. 내년이 또 모셔 올 랍니다.” 그것이여.

정씨가 길으로 와서 “미안허네. 내가 지사를 못참석하셔.” “내년부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모셔다가 지사를 지냈십니다.” 이것이여. 기 정씨가 이상허거든. 워찌서 아버지를 모셔다가 워찌여, 예 이놈 풀을 좀 불라고. 그날 지사때는 볼 일도 없는디, 일부러 회피를 했어. “나 볼 일 있어 또 못오겄네.” 그러고 오디 가 숨어서 봐. 게 밤이 됽게 거 두 내외 목욕재계를 허고, 목욕재계. 목욕재계라는 소리가 거 몸을 깨끗이 다시린다 소리여, 이? 목욕재계를 허고 또 가. 가서 “아버지 모시러 왔습니다”. 와갔고는 금년 이는 이제는, 궁게 정씨가 뒤밟으면서 따라와서 보는 것이여. 등불 밑이는 등불 든 사람은, 정씨는 환히 알지만은 안빈게. 그놈 행동을 좀 불라고. 이제 그짓소리 했는가, 참말로 그렸는가 불라고. 따라와서 들어. 궁게 “여그는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럽십니다.” 올적마다 그 조심하게 아버지를 거시기하고 그라니. “금년이는 또 농사도 읊매, 오디서는 더나고 들 나고 소새끼도 놓고 뻃아리도 깨우고……” 이딴은 얘기를 기냥 낱낱이 자기집 있는 것을 보고를 허고 즈그 집까장 와. 정씨가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는 안답시고, 안답시고 축이나 써 놓고 지방 갖춰놓고 했지만, 아버지기다 하나 우리집 안 내용을 얘기한 법이 없어. ‘아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것 갖구 하서 배웠다고 혈 수가 없는 것이고, 효자는 니가 기다. 요것을 허고 나라이다가 그 정생원이가 가서 보고를 했어요. 이러고이리고 현 우리 게 효자가 하나 있응게, 말하자믄 그 요새 말로 허믄 그 상을 내림과 동시에 특징을 허도라

고. 특징, 이 특차. 생원 벼슬을 거기서 쳤어. 박생원. 그 옛날에는 생원이면 양반 행사를 허갖고 암디 가서 원님 앞에 가서 같은 그 동좌석을 했어요. 그 라니면 하석에 앉으야하던지? 동좌석을 했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박씨가 박 생원이 되었다 이것이여. 응? 그래서 효도가 어떤가? 그만한것이 효도가 아닐까?

### 구운 게도 다리부터 떼고 먹으란 얘기

장소 : 부안군 행안면 마동 이기주씨택

구연자 : 이기주(남, 77)

구연일시 : 2000. 5. 2

조사자 : 심우장, 초립평, 나수호, 안순태, 이은실

그리고 요새 짚은이털 저 거시기 들어본 일 있는가. “구운 기도 다리부텀 떼고 먹으라.” 그런 얘기가 있지? 기를 구웠는디, 다른 디부텀 먹지 말고 다리부텀 떼고 먹으라, 그것이여. 그러면 요새 사람은 해석은 무엇이냐. 조심성 있어 삼가하라 이소리지? 그게?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구운 기가 혹시나 안 구어져서 달어날까 무섭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두 있지? 그런디 그게 아녀. 근원이 있어요.

옛날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년이란 세월을 무덤 앞에 가서, 그 “시묘”라고 허지, 그것보고. “시묘”. 그 무덤을 모시고 산다 그래서 “시묘”여, 이. 그 러분 3년가는 사람은 효자상이라는 상을 내려. 나라이서. 효자다.

그런디 가끔 거그는 요새 말하자면 감시원이, 그것보고 “시관”이라고 그려 이. 돌아댕기면서 보낸 사람, 시관. 그런디 감시원이 가끔 어느 때를 막론허고 와. 궁계 언제 올 지를 모르지, 그게? 그래서 기냥 무덤 앞으로 이자 3년 이 다 된, 해가 다 되어서 매칠 남질 않았어.

그런디 하루는 묘소 앞에 가서 가만이 봉개 기 한 마리가 큰 놈이 있어 이렇게? 기가. 얼씨구나 이놈 내가 이놈 잡어서 구워먹으야겄다.

그런디 3년 간은 말하자면 3년 간은 고기도 먹지 말고 삭발도 허지 말고 목욕도 허지 말고, 또 마누라한티도 가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이?

그런디 그 기를 갖다가 모드락불 놓고, 3년 간 그런 걸 안먹었응게. 그 기 한 마리가 나왔응게. 응? 그 먹을라고 한 것은 사실이여.

그런디 묘 앞으로 흐르는 내 하나가 있어요. 시내가 있는데. 거기다가 외나무다리를 놓고 건너댕겨. 그 외나무다리가 없으믄 묘소 있는 디를 오들 못 혀. 그런 장소여.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드락불 피 놓고 그놈을 막 구워서 먹다 봉게, 시관이 들어왔어. 시관이 덜컥 들어와 들켜서 3년 간 허사여. 그게. 그 러고 벌만 받아, 불효자라고 이?

그렇게 다리부텀 따라 소리가 이 다리를 치어 놓고 했드라면. 이 다리가 기 다리가 아니라. 이 다리를 치어놓고 했드라면. 다리 놓으라고 고함 토허먼 이 숨길 수가 있어, 이.

그리서 요새 사람은 허다이, “구운 기도 발목부텀 띠고 먹으라.” 발목이라고 허는 건 아녀. 게 말허자면 발목이 아니라, 다리여, 다리. 기 다리가 아니라 이 다리. 그래서 3년 시묘상 헌 게 허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궁계 “매사를 조심하라” 거그서 나온 소리여. 매사를 조심하라.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허면 그럴 것인가?. 그것이 신중치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일화가 하나 있는 거. 말허자면 일화뿐만 아니라, 속담이여 그게 속담. “구운 기도 빨목부텀 띠고 먹으란다 야!” 이러고 어찌기 조심하라 이러거든? 발목이라고 허면 무식한 사람이여. 잘 몰르는 사람이여. 그 유래가 이 다리, 이 다리를 치야 쓰고 먹었더라면 안들킬 것을, 그소리여. 그소리.

### 상여소리

장소 : 상하면 하장리(만물상집)

구연자 : 최수성(남, 71세)

구연일 : 2000년 5월 2일

조사자 : 김현식, 엄윤주, 윤경아, 박진영

[자리를 잡을때]

에~ 애혜~ 이~야암보우오살(예! 애~ 애혜~ 이~야암보살 " ")

관음보으오살(예이야암 관음보살)

[관을 맬 때]

어 이~ 이야암 관음보살을 찾고 또 찾으지면은 어둔길도 밝아지고 좁은길도 널려진다네 그려 관음보으오살(관음보살)

[방안에서 관을 들려 설 때]

어 이 이야암 마즈막으로 가는 길이니 마즈막 하직을 하고 가네 그려. 관음보그오살(관음보우살)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는 준비]

아 이 이야암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 세상으로 나는 가는데, 이제 가면 언제나 갈지 날이 막연하네 그려. 관음보그오살

[나가서 소리를 바꿔준다]

어 어노 어그노 어그<sup>으</sup>노 어어 노우오(어노 어노아 어노)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나는 가네(어노 어노아 어노)  
이제 갈면은 언저나 오실까 오신단 날이 막연하네(어노 어노아 어노)  
나무라도 고목이 되면 모든 새들도 아니 오고(어노 어노아 어노)  
물이라도 건수가 들면은 노든 골기도 아니 놀고(어노 어노아 어노)  
꽃이라도 낙화가 되면은 모든 날비도 아니 오고(어노 어노아 어노)  
우리 인생도 한번 갈면은 다시 이 세상을 못 오나니(어노 어노아 어노)  
어그 어그노오 어어어 어으어노우오(어노 어노아 어노)  
서른 두명 뚜대군들 내말 잠깐 들어보세(어노 어노아 어노)  
먼데 사람들은 듣기도 좋고 가지근데 사람들은 보기 좋게(어노 어노아 어노)  
어그 어그노오 어어어 어으어노우오  
명사 십리 해당화야 내 꼬꼬 진다고 서러마라(어노 어노아 어노)  
너는 젓다가 또다시 피련만 나는 가면은 못오나니(어노 어노아 어노)  
이팔 청춘 소년털아 백발보고서 웃지마라(어노 어노아 어노)  
우리네 백발도 언제든지 이렇게 갈 줄을 누가 알까(어노 어노아 어노)  
가세가세 어서들 가요 하관 시간이 다되어야가네.(어노 어노아 어노)  
어노 어그노 어어으어 어으어노우오(어노 어노 아노아 어노)

어제야 밤비는 여기서 놀았는데, 오늘 밤비는 어데서 놀까(어노 어노 어노  
아 어노)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되면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까(어노 어노 어노  
아 어노)

육지가 변해서 바다가 되면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까(어노 어노 어노  
아 어노)

가시는 날은 오늘인데 오시난 달은 막연하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어노 어그노 어어으어 어으어노우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지상 세계가 늦다고 하드만 전화 한 통이면 만나는데(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저승 길이 얼마나 멀면 한번 가시면 못 오실까(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가문에게 우애하며(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한오백년 살으려했건만 이렇게 갈 줄을 누가 알까(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어노 어그노 어어으어 어으어노우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관음보살(관음보살)

에 에혜에엠 이~야암보살(예이 예이이암보살)

관음보살(관음보살)

어 히~히~이야암

잘가시라구 말을 해도 내가 거기 너무나 원통한데, 한 손으론 채기를 잡고  
눈물을 흘니며 우니 내 어이 갈 수 있느냐 그려

관음보그오살(관음보오살)

어 히기히어

가네가네 나는 가네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 세상으로 나는 가네 그려

관음보으살(관음보오살)

어 히기이히이암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니 내가 살든 자식들 집에 하직을 하고 가네 그려  
관음보그오살(관음보오살)

어 어허어어노 어어허어허어로(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가네가네 나는 가네 이 세상 하직하고 나는 가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이제 가시면 언저나 오실까 오시난 날이라도 말해주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내년 요때 춘삼월에 꽃이 피며는 오시려나(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동지 설달 서나한 풍객 백설이 쌓이면 오시려나(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가시는 날은 오늘인데 오시난 날은 막연하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못 가겠네 못 가겠네 다리가 없어서 못가겠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여기는 다리가 외나무다란데 양쪽에 서로가 벗되어서 가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다른 아녀자가 서로가 넣고 양쪽에 포대서 모셔가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어으노 어으노 어어으어어으노(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가실 길을 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많아도 못가겠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어둑 어노 오늘이 농처가(?) 어노(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이제 갈면은 언저나 오실까 오시난 날이라도 말해주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저싱길을 가려고 하니 너무나 험악해서 못 가겠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물도 건너고 다리도 건너고 산도 넘어야 저승이네(어노 어노 어노아 어노)

### 당할머니 사당 이야기

장소 : 해리면 동호리

구연자 : 박별녀(여, 83세), 최양립(여, 66) : 모녀관계

조사자 : 김현식, 엄윤주, 윤경아, 박진영

조사일 : 2000년 5월 2일

근데 이제 당 자당인데…… 이때는 솔도 하나도 없고 동백나무만 꽉 잡혔어. 나 한 20살 먹을 때까지도. 근디 동백 나무를 당 없어지고 본게 너무나 밀큼에서 못 쓰겄거든. 그런게 우리가 솔을 갖고 당나무 심기다 그러니까 청년들 인제 우리 돌아가신 양반들 젊어서 솔을. 그래서 당할머니도 비도 잘 안왔는디, 그 당 할머니를 어떻게 해서 오셨냐하믄, 내가 성 박씨인디, 내 위로 한 10대나 15대나 되는 할아버지가 동지 벼슬을 했어. 근는디 머슴을 열

들이나 데리고 참 쟁쟁하게 부자로 사는디, 그 할아버지가 말하자면 잠이 지피 안집 안방에서 짚이 들었는디, ‘박동진이 박동진이’ 부르드라요. 대문이 안 대문이 있고, 밖대문이 있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그 오셔가지고, 신령님네로 오셔가지고, 박동진이 박동진이 부른게 할아버지가 문열고 누구소 그런께 나서 나오소 그랬어. 산사람같이 열씨미 근계 큰 거시기 쇠주렁을 짓고, 거시기 관복을 입고, 네가 잠만 자지 말고 네 명의를 얻어라. 우리 여기 동의 명의를 얻어라. 잠만 자지 마라. 네가 이 모퉁이를 돌아가면, 이 당제라는 건 뭔 유한캠(?)이라는 이름이 없었어. 그때는 몇 백년 전이라. 당제 모퉁이를 돌아가면 뭐가 밟을 것이다. 그런게 연장을 들고 가서 그것을 파 봐라. 그래서 인저 또 그냥 지핀쟁이로 이불 개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가서 도로 들어와서 에이 춥다고 도로 이불 덥고 도로 잠이 들었는데, 또 깨 할아버지가. 또 나가서 본게 곤 날이 샌다 물이 날 새면서 물이 쓰릴 것인게 빨리 가봐라. 그래서 글로 간게 여기 밑에 돌아가는 데로 가면 요리 희 돌아가면 꼭 이 방안 만한 꼭 이쁜 돌이 깔렸었어. 그래서 그때는 고기를 잡으면 바위에 가서 널고 그랬는데 그 바위로 간게 방안 만치 빙돌고로로 한다, 물이 채어서 나가버리고 옛날 돈묶이가 빼죽빼죽빼죽 나왔드라. 그래서 당신이 인자 관복을 입고도 전답이 많고 근계, 내일 개똥 망태기를 지고 뎅기면서 개똥 쓸어담는 호미를 들고 뎅기면서 거기를 댓칼로 파본게 따그락따그락 한다 분명히 돈맥이는 돈맥이인데 파지질 안드라. 그런게 도로 당신이 들어가서 머슴 둘을 데리고 인자 뭐 한가래 그제는 한가래 서에 일으키는 한가래 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 가자 갔더니, 가서 판계 그래나 돈이 얼마 나온게 남은 일꾼들 보고 막 쳐들여라. 그런데 당제가 당제 산이가 방안만치 반득이 디고 방안만치 반득이 있어. 돈막을 달구었다가 가지고 가서 거기다 파라. 그래서 푸고 막 푸고 난게 물이 아 드러버렸어 내일 또 물 있으면 파자 갔더니, 이제 지푸라기로 바람을 엮어서 돈을 이렇게 막아놨는디, 그 뜻날 가서 물션네 가서 본게 한 개도 없어. 그것 밖에는. 그렇게 어느 날 또 와서 박동진을 또 찾어. 그신령님이. 또 나간게 이 뒤에 가면은 이 유황정을 돌아가면 뭐가 할머니가 계실 것이니, 잘 모셔다가 너의 초당에다 두었다가 거기다가 초당을 지어라. 할머니 초당을 지어라. 그래서 꿈도 같고 생시도 같은데 할아버지가 어디쯤에다 초당을 지으면 쓰겠습니까. 물은게 그 터를 잡으주드라. 여기다 하면 동

바다를 천지를 다불텐게 바다를 안대로 해서 집을 지어라. 그래서 먼저 집을 지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 근디 유원길이 가보라고 해서 간게 씨 방 할머니 모셔놓은 할머니를 작 갖다가 넓은 동으로 반드시 놔 두었드려. 좋은 비단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할아버지가 그랬구나 하고는 잘 모셔두고는 품으로다 띠고 왔어 당시 초당으로 이고 일을 시작해 그 돈 갖고. 그래서 언선이 언산리 이북이 언산이지. 이북이 언산 이북 언산서 나무 쫓고 쫓은 것만 떼라 목수 아주 1등 목수 갖다가 서당을 잘 빼어서 2월 하루부터 일년을 짓고 난게 2월 스무날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대가나 광대들 불러다가 크게 한게 음식장만하고 있은게 할머니를 모시고. 그때는 이 곰파스 쇠가 없어 가르치는 곰파스가 없은게. 이제 대중서도 텅기는데. 시나 생고 날이나 굽고 하면 그걸 찾아오질 못해. 배들이 모퉁이를 돌아 올 수가 없어. 그러면 할머니가 꼭 후라시 불만하게 불을 밝혀죠 그러면 저 불이 당할머니 불이다하고. 그래서 돌아서 대중 오면 앞에서 닫고 그래서 지거나 오는디, 그 돈으로 남은게는 그 할아버지가 또 와서 박동진이 아그들 교육하는 시방같으면 학교지만 서당을 지어라 남은 돈으로 그래서 할아버지가 서당을 지었제 그런는디 어느날 항하던 놈들이 당할머니한테 와서 큰 굿을 하고 할머니 모시고 가면 돈을 그렇게 잘 벌드레. 그래서 할머니를 뜯어서 도둑질 해 가버렸어. 항하던 놈이 근디 그 역사 써진 글씨를 본게 어디 먼데서 왔어. 딴나라에서. 그랬는디 이러가부린가 어디서 환치는 환쟁이 좋은 사람데 려다가 환을 쳐서 또 모셨어 또 모셨는디, 그 뒤로는 불을 안 밝혀줘. 영검이 없어. 그래서도 여기는 어촌이라 배들 있으면 큰 곳에 모시면 그래도 당할머니한테 가서 잠 수대로 가서 불이고 잘 대접하고는 당할머니 당을 맞아가지고 배에다가 모시며는 그 양반이 눈을 떠주면 돈을 잘 벌고 어째 조개 부족 해서 음식이라도 추하며는 아주 그 사람은 손털어 번지고 고로고 영검을 했다구. 그리고 이제 6·25 사변에 이놈들이 와가고 싹 뜯어서 상놈 상 뻔질뻔 질 좋은 놈 다 뜯어다 불 놔서 머리 파먹고 문짝을 다 뜯어다 이불하고 하상은 하상대로 뜯어내버리는 게 이 동네 이기일이라는 사람이 간수를 했다가 당을 또 모시는디 여가 전순경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 전순경이 상하기어서 근무를 했는디, 몸이 아픈게 집에 와서 있는디, 직원이 그러드래요. 어이 청부자님 어여 할머니하고 젊은 아줌니들 하고 와서 어여가가(?) 네

분이거든 할머니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가서 두 며느리가 있고 앞으로 막 등이 땅이 있고 다 좋은 한복을 입었어. 그런디 어쩐 일이시냐고 인사를 하고, 어쩐 일이냐고 한게. 나 동호 당제에서 왔다 했는디, 내 집이 헐어서 문짝도 없고, 그런게 춥고 비가 오면 비가 내리쬐고 험상스러운게, 너한테 시주 하려 왔다. 거시기 내 집을 고치려고. 아 그러시냐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잘 가시라고 잠을 깨고 본 게 자기 집인데. 상하로 고물이네요. 상하 지서로. 그래서 그때 당시 와가고 전순경이 개처를 했어. 담을 쌓고 다 좋게 비 새고 그런거 우리 청년들이 다 닦고 메 지르고 했어. (최양립 : 전순경이 다 고사만 지냈어. 엄마는 아이 전순경이 설득을 했어) 그런게 우리 청년들이 전순경 담당이 없고 우리 담당인디 전순경이다가 순응을 했은게 우리가 간다고 우리 영감 또래로 청년들을 삭 모아서 일을 했어. 그래서 기와도 새로 이고 했는디. 그래서 세 번째 할매가서 세 번째여 하상을 없애버렸어. (최양립 : 그 할머니도 도둑 맞어 버렸어 전라남도 놈들이 가져가가고 가서 본게 진짜가 아니거든 그래서 도로 소포로 부쳐서 왔어) 그때가고 또 당할머니 모실 적에 사방에서 시사가 들은 게 이 시사를 모아두면 이 돈이 없어진다. 그런데 인자 동네 어른들까지 피서(?) 돈을 세서 하는 놈 쪼개 더 보태서 이 할머니 하상을 새로 모시자 그랬더니. 그때뿐이지. 누가 안해 주어서 할머니가 험탁하고지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게 동백정이 동호라고 하고 당제는 초당이라 하고 이름을 밤에 박동진이를 찾았던 신령님네가 지어준거여. 그 밑에다가 교육하는 한문 서당을 지었는데, 그냥 버려 나둔게 험상스러운게 멘이 와서 헐어버렸어. 작년이사 새로 지어준다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다 출세했단게. 그 서당에서 글 배운 사람들은 참 외국 유학간 사람들 보단 대학생들 사람들 보단 넘넉은 글을 배운 사람들은 다 죽었어. 시방 하늘천 따지도 몰라. 내가 오빠가 넷이었는데, 인공 때 죽은 오빠가 내 네 번째 오빠가 거기서 글을 배워가지고, 그 이를테면 통감 세째권을 읽으면 대학 유학간 놈보다 더 읽은거여. 근데 통감 셋째권까지 읽었다고. 우리 오빠가…… 그래서 동네에서 이장도 해 보고, 점잖하게 놀았지. 그리고 그 뒤로는 촌생들이 모두 안가 아무것도 모른게. 그 설주도 모르고 설주할 만한 양반들은 모두 죽고 객지로 나가고 한 이백호가 넘는다. 동네가 인자 불과 한 150도 못되는 가벼. 다 이사가고. (조사자 : 그러면 지금도 당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십니까?)

암..그리제 스무날 당할머니 개고 수륙제라고 있어. 물에서 죽은 무주 혼신들 어디서 밥도 못 얻어먹는 사람들 밥만 장만해서 술도 둉이로 하고 떡 받득 보리로 이고 해서, 이월 초하랫날 음력 이월 초하랫날 수륙제를 지내. 근데 수륙제 지낼 적에 당할머니를 대접하고는 이 당할머니 생일은 없어져 버렸어. (최양림 : 아니 그런 음식을 당할머니 제사 지낼 때 먹지? 다 바다에다가 부수어 버리는 거야) 암 이고지고 가서 배에다 싣고 막 풍물 농악 치면서 배신 선주들이 추구로 발려놓고 가서 다 그 갯물떠서 세수하고 손 씻고 제물을 그 자리에다가 붓고붓고 하면 동네가 좋으려면은 그 자리가 든새없이 가라앉고 쪼개 나쁘려면은 음식이 다 떠당겨 (조사자 : 예전에 제사를 안 지냈더니 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지 그런 이야기라도 있나요?) 응..... 안 좋았어. 안지내고 그래서 웅.. 3년만에 한해서 객지 사람이 죽고죽고 했어. 우연히..... 같이 동네 사람하고 같이 치고 혜엄을 쳐도 객지 사람들이 가라앉쳐서 죽고. 그랬다고. 근디 한 근 20년 간을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는 그런 일이 없어. (최양림 : 아니야 제사 지내고 깨끗이 못 지내면은 동네가 시끄러워. 내가 여기서 제사를 많이 맡아 지냈거덩. 그런께 옛날 우리 아버지가 배를 일중순이라고. 그런 배가 있어 모든 경험을 내가 많이 했어. 그래가꼬 내가 제사를 많이 지냈어.) 우리 집에서 우리 영감 살아있을 때 애가 딸이여. 우리 야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당신이 동호당에서 당을 모셨어. 모시고 우리 배를 한 근 30년 간 했어도 아무 탈이 없이 했다니 사람 하나 궂은 일도 없고 그랬어도 음식이 추한 사람이 먹었던지 추한 사람이 왔더든지 하면, 그 사람은 큰 해를 받는 음식을 먹고 가는 거야. 그렇게 영검한 당할머니였었어. (최양림 : 그래도 제사 같은거 잘 못 지내면 동네가 시끄러워.) 그래 저 먼데 흑산도 같은 데서 배질을 하다가, 인자 배질을 하 배질을 하고 노젓고 기계가 없고 노질을 하고 삿대질하면서 배가 올라오면서, 인자 대종을 하고 짐작을 하면 당할머니 있는 제는 불을 안 밝혀줘도 환하게 화기가 있어. (최양림 : 옛날에는 거시기가 없었지 기계 같은 것이 잘 없었어 그냥 노젓고 그래가지고 텅겼지 배를) 근데 여만 피해서 오면 눈 밝은 사람이 보면 거기다가 하경마냥 비춰주었던 거지. 할매가 그래서 따라 찾아오면 꼭 여가 닿고 그랬어. (조사자 : 지금도 그렇나요? 지금도 이렇게 환한 느낌이 있고 그러나요?) 시방도 내 맘으로는 내가 쪼개 젊고 내 아들이라도 그런제 크고 야내

아버지라도 살아있으면, 하상이라도 꼭 모셔다가 그전과 같이 제사생을 찾어 지내주고 하면, 그냥 물위에로 할매가. 할매가 오신데가 외국은 외국이라도 머리도 이런 한국사람처럼 하지 않았어. 꼽실꼽실하니. (조사자 : 그러니까 할머니가 외국 할머니이네요) 어 참 팔이 좋아 할매. 근데 시시해서 끄실렸다고 뺀다고 해가고 시시해서. 비도 잘 안해. 그런데 하상을 새로 더 길어야만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 (조사자 : 그래도 할머니가 예전에 그 하상을 본 적이 있으시죠?) 있구말구. (조사자 :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리시면...) 내가 할 줄 알아야 그리지. (조사자 :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리게 하면...) 저 하상을 갖다놓고 그 식으로 해야지.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 할매 우아래 소복으로 이렇게 해서 다녔지. 올라가시면 가 구경을 해 보쇼 저기 요로 코 가면, 초소 있는 데로 올라가는 가이당이 있어. 가이당으로 올라가서 문 열고 구경하고 가시오. (조사자 : 그러면 구례산이라고 있나요?) 당제라고혀 여기서는. (조사자 : 아아 당제가 구례산이예요.) 여기서는 당할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당제라고 혀. (조사자 : 거기는 풀이 안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 데요) 풀이 잘나지. 근디 그때 나무가 귀할 때는 젊어서 우리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런 보일러도 없고 그럴 때는 나무들을 뜯어서 다 땠고. 서당 방안으로 교육가르치는 선생님 불때주고 그랬어.

근데 솔이 크면서는 많이 죽더만. 풀 같은 것이.